

기도

1. 하나님께 마음을 세우고, 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믿음으로 살았지만 고난과 환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2. 자신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디도서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목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지 목회적인 메시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핵심 진리들로 가득차 있다.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은 영생과 구원, 예수그리스도의 신성과 재림, 중생, 칭의 등등이 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을 확정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마음을 확정하라

시편 57편 6~11절 (15장, 300장)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겠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나 원수들이 기다리고, 많은 고난과 환란이 가득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입니다(6절).

다윗은 어디를 가나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6절a). 이와 같이 다윗이 가는 곳을 많은 악인들이 막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가 가려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 믿음으로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고,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고, 본문의 시편을 지을 때도 사울 왕을 피해 굴속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했지만 그의 앞엔 악인들이 가로막고, 환란과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습니다. 악인들이 웅덩이를 팠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중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6절b). 이처럼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됩니다(시9:16). 잠언 29장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면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악인이 행하는 길은 죄의 길이고, 자신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길로 걷지 않고,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7~11절).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7절a). 확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세우고,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고난과 환란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기 위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합니다(8절).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깨어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인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깨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첫 시간, 첫 마음, 첫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회복해서 주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9절). 이처럼 찬송을 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들이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두운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의 영광을 선포하겠다고 고백합니다(10~11절).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진리는 오묘하며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실만하고,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새벽을 깨우고, 자신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를 위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를 찬송할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세우고, 고정할 수 있습니다.

